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5년도 표어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행동지침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터가 흔들릴 때

(시편 11:1-4)

미국 Union 신학교의 Paul Tillich 교수는 'Shaking Foundation(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책을 출판하여 한 동안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국가가 흔들릴 때 성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가의 법질서가 무너지고, 도덕이 퇴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경제가 파탄되어 흔들릴 때 성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11편은 터가 흔들리므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신앙적 응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주님은 이제 자신의 권세와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또 주님처럼 결코 흔들림 없이 주님이 계신 성전과 하늘에 계신 보좌를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뵈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셨고 인간은 죄 까닭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자기를 보여 주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출 33:20).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 바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악인은 숯불과 유황처럼 불탈 것이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요일 3:2).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 의심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 11:40)고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패역한 세상에서 모든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므로 그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와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4절).

다윗 왕 때에는 아직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성전에 계신 여호와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곧 지성소를 말합니다. 다윗은 환난날에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호와와 눈은 어디서나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라”(잠 15:3).

하나님은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촉하고 계십니다. 통촉과 감찰은 같은 말로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2절).

하나님은 악인들의 행동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통촉하십니다. 감찰한다는 말은 시험하고 검사하고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인정을 받게 되고 악인은 마침내 저주를 받게 됩니다.

터가 흔들릴 때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악인이 어두운데서 활을 쏘려고 할 때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도다”(6절).

그물은 히브리어로 ‘파침’이라고 읽습니다. 여기서 모음만 바꾸면 ‘패침’이라고 읽히며 이것은 숯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악인에게 숯불과 유황이 내릴 것이고,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처럼 태우는 바람 곧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위하여 악한 가라지를 아직 뽑지 않으실 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라지와 알곡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환난날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늘에 계신 보좌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2. 의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보아야 한다

“여호와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오리도다”(7절).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 곧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춰져 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간청을 받으셨지만 그들의 조언을 거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이들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탄식 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온 세상의 터가 무너져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과 정의와 양심의 터가 무너졌을 때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앞으로 나가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이제 자신의 권세와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또 주님처럼 결코 흔들림 없이 주님이 계신 성전과 하늘에 계신 보좌를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뵈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터가 흔들릴 때 성도는 여호와께 피하고 안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환난날에도 주님에게 피하지 않고 주변만 맴돌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피할 마음이 일어날만한 절박한 환경에 봉착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D. L. Moody는 “당신이 평안할 때는 예수님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골짜기 들어가면 예수님께 직접 말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 피할 줄 모르는 사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금 당하는 환난보다도 더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안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동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하고 터전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상선별악의 능력은 무소불능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믿고, 위로를 받으며 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5 사명자 대회 시작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발대식 가져

2005 사명자 대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사명자대회 준비위원회는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발대식을 갖고 50일간 계속될 기도와 전도의 첫걸음을 뒀다.

사명자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월요일 0시부터 24시간 전교인 연속기도가 작성한 시간에 끊이지 않고 연이어 계속되며 대신자를 작성하고 50일간 기도와 전도에 힘써 마침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은 매일 오전10

시와 오후10시 2회 열열이 기도하는 다니엘기도에 동참하여 한목소리로 다섯 가지 공동기도제목 을 가지고 기도하며 다락방 및 교회학교에서는 잃은 양 찾기 운동을 벌인다. 또한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교역자 그리고 70인전도대가 중심이 되어 노방전도와 축호전도와 문서전도에도 더욱 힘쓰게 된다.

모든 성도들이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의 사자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2006년도 당회조직 발표되다

우리교회는 새해 당회조직을 발표하고 새해 준비에 들어갔다.

당회 서기: 오정수 장로
예배위원장: 김영준 장로
교육위원장: 김세재 장로
전도위원장: 하영수 장로
구제위원장: 윤봉준 장로
재정위원장: 노송성 장로
장 학 회: 정병무 장로

기획위원장: 노문환 장로
찬양위원장: 김광신 장로
교구위원장: 임상현 장로
선교위원장: 이영기 장로
관리위원장: 성준경 장로
교회개신연구원: 조성식 장로
출 판 국: 전기섭 장로

동산관리: 서문석 장로
차량관리: 왕경래 장로
상 조 화: 조성식 장로
멀티미디어: 전기섭 장로
주부대학: 이복규 장로
예 전 부: 이관규 장로

살림권사회: 최금자 권사
스태반회: 김영주 집사

비전2020: 진 돈 장로
식당관리: 이관규 장로
상 담 실: 성준경 장로
경로대학: 박두영 장로
성경대학: 홍성주 장로
영어예배: 이갑진 장로

권 사 회: 이영희 권사(오)
제작회서기: 김형택 집사

화요 정오음악회

10월11일(화)-11월15일(화) 매주 화요일 정오 본당에서

금번 4회째 맞는 서울교회 화요정오음악회가 11월(화) 본당에서 해금과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를 시작으로 11월15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정오에 계속 된다.

화요정오음악회 가을시즌은 오르간과 다른 악

기들이 함께 하는 실내악 연주회로 꾸며지고 있으며 깊어가는 가을에 성도와 이웃주민이 한자리에 서 좋은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유명 연주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음악회에 많은 성도와 이웃이 함께 하도록 기도한다.

오르간과 함께하는 실내악 연주회 (Chamber Music Concert with Organ)

- 10월 11일: 해금과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 (Concert for Haegume and Organ)
해금: 강은일 오르간: 조인형
- 10월 18일: 플루트와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 (Concert for Flute and Organ)
플루트: 윤현임 오르간: 김선정
- 10월 25일: 호른 앙상블과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 (Concert for Horn Ensemble and Organ)
호른: 조진선 윤갑수 권문용 오르간: 강민정
- 11월 1일: 오보에와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 (Concert for Oboe and Organ)
오보에: 성필관 오르간: 오자경
- 11월 8일: 오르간 듀오 연주회 (Organ Duo Concert)
이성심, 강혜미(오르간)
- 11월 15일: 트럼펫과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 (Concert for Trumpet and Organ)
트럼펫: 성재창 오르간: 백금옥

어린이 백일장 사생대회

오늘 오전 10시 한티공원에서

교육1국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어린이 백일장 사생대회가 1부 예배 후 10시에 한티공원에서 열린다.

참가하는 어린이들은 필기도구와 화판 크레파스 혹은 물감은 본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원고지와 도화지는 교회에서 준비한다. 출품작들은 14일

(목)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16일자 순례자에 입상한 어린이들을 발표하며 이날 찬양예배시간에 시상하게 된다.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서울교회를 표출하여 자신의 재능도 발견하고 나의 사랑 하나님께 영광돌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독서실 개관한다

102호 미스바홀을 개방키로

우리교회는 지역 주민들과 본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102호 실을 독서실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509호실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를 102호실로 옮기고 도서를 확충하게 된다.(단 주일 오전 시간은 사랑부가 사용)

가정에서 신앙서적이거나 교양서적의 기증도 받는다. 독서실 개관은 11월로 예정하고 있다.

교사기도회 개최

14일(금) 오후 7:30 101호

하나님이 맡긴 생명을 교육할 큰 책임을 맡은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결단을 위한 기도회가 14일(금) 오후7시30분 101호에서 열린다.

이번 교사 기도회의 강사는 정정숙 교수(총신대)가 서며 '상담자로서의 교사'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시무인준투표 전원통과되다

서울교회 당회는 지난 5일 목사 장로 안식년 규정2조에 의거 담임목사와 안식장로(왕경래 하영수 노송성 박두호)의 재신임투표를 실시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한편 헌법2편5장3조에 의거 부목사 연임청원과 교회직원 내규에 따라 직원 시무인준투표도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2001년부터 목사 장로 안식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교회는 인준이 한번도 부결된 일이 없이 서로를 존중하여 여기는 마음과 화평한 당회의 모습을 보여주며 성도들과 한국교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중윤 목사는 올해가 안식년이었으나 교회 형편상 안식년을 반납하고 그러나 시무 연임투표는 규정대로 지난 98년도에 이어 7년만에 다시 받았다.

협동장로 한 분을 모시기로

지난 10월5일 정기당회에서 진돈장로(잠실동 교회에서 장립)를 서울교회 협동장로로 모시기로 했다.

협동장로는 서울교회 운영 규정 제3장 5조 3항에 의하면 40세 이상된 자로 7년 이상 무흠 입교인이고 타 교회에서 장립 받고 이명해운 자로서 본교회 등록 2년이상 된 자를 당회가 임명한다.

헌당감사 14대 행사-연합찬양제 참가교회 찬양대 소개

사명자 대회 50일 연속 기도-고회를 위하여.

새문안 교회의 새은찬양대

우리 교회는 오는 11월 13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헌당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타 교회를 초청하여 임마누엘 찬양대 주관으로 '연합찬양제'를 갖는다. 초청대상 교회는 새문안교회, 영락교회, 소망교회로서 이는 한국에서 제일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우리의 이웃 교회라는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순례자는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 연합찬양제 참가 교회의 찬양대를 소개한다.

새문안교회는 1887년 서울 정동에 언더우드 목사에 의해 한국 최초의 교회로 세워졌다. 새문안 교회는 한국교회의 모체로서 뿌리 깊은 신앙과 강열한 선교정신을 가지고 그간 교회 연합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이번에 참가하는 새은 찬양대는 새문안교회의 4부 예배를 담당하는 찬양대로서 1987년에 창단되었고 '새은'이라는 이름은 '새문안'의 '새'와 '100'의 순 우리말 '은'이 합쳐진 이름이라고 한다. 대원은 100여명으로 오케스트라와 함께 찬양을 드린다. 새은 찬양대는 새문안교회의 7개 찬양대 가운데 유일하게 악보를 보지 않고 찬양을 하여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으며 이는 새은 찬양대의 큰 자랑거리라고 한다. 한편 새은찬양대를 지휘하는 김경희 집사는 한국 최초의 여성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 베를린 국립예술대학 지휘과에서 음악학을 수학하였고 대전 시립 교향악단의 초청 지휘를 시작으로 남성이 지배적이던 지휘계에 여성으로서의 처음 그 발걸음을 내딛었다. 김

경희 집사는 여성 지휘자에 대한 생소함과 편견을 음악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열정, 풍부한 음악성으로 극복하며 이제는 한국의 명실상부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숙명여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새은찬양대는 지난 4월 이종윤 목사님이 강사로 서셨던 새문안교회의 집회 첫 날, 찬양에 큰 은혜를 받으신 이 목사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초청하였다고 한다.

대장 박창원 장로님은 서울교회의 헌당을 맞으며 "14년이란 짧은 역사 속에서 그토록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헌당하게 된 서울교회에 진심어린 축하를 드리며 성령 충만한 이종윤 목사님을 모시고 한국교회의 등대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서울교회의 모습이 너무 감명 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부흥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새은찬양대는 이번 연합찬양제에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 하나님 지은신 모든 세계' 등 두 곡을 가지고 오케스트라와 함께 참가한다. 허숙(편집부)



새문안교회 전경

만민에게 전도- 청년부 가을 사경회 후기

야외사경회와 새가족부 MT를 다녀와서

오정식 목사(청년부 지도)

청년부는 청년부 야외사경회와 새가족부 MT를 다녀왔습니다. 청년부 성경공부 조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사경회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공동체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만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선 같은 만남, 꽃 같은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이 그것입니다. 생선은 만지면 비린내가 나고 더러운 것이 묻습니다. 서로의 만남이 좋지 않은 영향만 끼치는 만남입니다. 꽃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만나면 향기가 나고 좋는데, 곧 시들어버리는 만남입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대부분 이러한 만남입니다. 마지막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헤어질 때 아쉬워

서 눈물을 흘리는 손수건이 필요한 만남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서로를 위해, 특별히 새가족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 손수건 같은 만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새가족부 MT는 개회예배 이후 은사발견 검사를 통해 서로의 은사를 발견하고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청년부는 11월 27일 교회 창립일에 300명 출석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물을 퍼온다고 해도 그 물이 그릇에 담겨지지 못한다면, 진정한 부흥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혼구원을 위하여 매진 하되 담을 그릇을 든든히 준비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만남과 교제가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왜 우십니까...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어둠이 짙어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이 백성을 보시고 주님, 우십니까.

거짓이 선을, 불의가 정의를 짓누르는 이 세상을 보시고 주님, 우십니까.

진리를 참이라 말 못하고 핑계만 하고 있는 우리의 나약함을 보시고 주님, 우십니까.

목소리만 크게 울리면서 행함이 없는 한국 교회 때문에 주님, 우십니까.

변화를 두려워하고 자기 껍질 속에 웅크리고 앉아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이버 신자들 까닭에 주님, 우십니까.

마천루 높은 빌딩 숲속에서 질주하는 차들과 희희낙락하는 군상들을 보시면서 서울의 독사들이 남산의 암소들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올라 하십니까.

주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주님은 나 때문에 울고 계십니다.
주님 이 좋은 주님 대신 통곡을 하겠습니다.

사명자 대회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못다한 사명을 인하여 통회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건만 자기만 사랑한 죄를 자복합니다.

아무 것도 염려치 말라 하셨건만 근심의 노예가 되었던 불신과 분순종의 죄를 회개합니다.

꽃대를 향해 달려가라 하셨건만 암초 앞에 좌절했던 불충의 죄를 애통해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풍성한 이 가을,
우리 모두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2005 사명자 24시간 연속기도표 (10.9 - 15)

기도지원자는 1층 현황판에 이름을 적으십시오.

일시	0-1	1-2	2-3	3-4	4-5	5-7	7-8	8-9	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23-24
10/9	주일																						
10	사명자 대회 발대식																						
10	김광신 이갑진 이명순	김광신 이갑진 이명순	김광신 이갑진 이명순	김광신 이갑진 이명순	김광신 이갑진 이명순	변은영 이예경 전영자	이안순 한경삼 고옥자	김해영 최영옥 박미영 연미경	남옥진 문순순	김정의 김수옥	김정의 김수옥	염금순 이정희	이은희 이학명	허인숙 유율상 김영옥	허인숙 유율상 김영옥	최용결 임순자	최용결 임순자	임순자	박두호 김종희	임승자 김지덕 황정임	노명자 안명덕	진교남 전인상 서경학 송광호	
11	오정수 윤찬오 이명순	오정수 윤찬오	오정수 윤찬오	오정수 윤찬오	오정수 윤찬오 최홍렬 김원중	세 벽 기 도 회	이동만 최영렬	김영호 서대식 박성금	한창현 안창희 이윤정 정봉금	장정의	장정의	장정의	장정의	남순덕	남순덕	주익현	주익현	권장철 박순단 정미경	양일순 이강전 고원순 최인수	정선호 권오준 이희성 김태영	김원환 유관모 정유선 최인	유근중 이복규 배은희 한명숙	윤성남 이영희
12	노문환 신용식 정옥희 이명순	노문환 신용식 정옥희	노문환 신용식 정옥희	노문환 신용식 정옥희	노문환 신용식 정옥희		김정순 인찬희	김현정 정영옥	김현정 정영옥	황노전 한중우 임순자 김홍술	수 오 1 부	최장자 김동렬 김성연 손동일	최영란 이남성 신영순 임낙식	강정임 장재원	박영순 서순영	김재근 안본선	조성엽 김순수	정현숙 김규성 김진숙 서춘식	수 오 2 부	김명숙 최길옥	김영숙 김영희 김광태 최종희	정창빈 김숙연 정찬수 하미영	손태기 박우옥
13	정병무 조정식 이명순	정병무 조정식	정병무 조정식	정병무 조정식	정병무 조정식 정호자		최창봉	최창봉	김현숙	유수인 김은주	김해수 이영숙 송익숙 유수인	함정희 김미선	조정옥 홍석현	박이선 나옥녀 신정순	곽숙 임명숙	김숙자 최창하	위성남 김예영	서희숙 윤갑숙	김건중 강원배	김현숙 조동완	김은주 조동완	권은주 조동완	권은주 조동완
14	김대호 전기섭 이명순	김대호 전기섭	김대호 전기섭 최차순	김대호 전기섭	김대호 전기섭		이금순 김인숙	이금순 김인숙	김우옥 이선희 최숙자	전원순 김숙자	전원순 김숙자	김경희 남옥진	김경희 남옥진	박창희 황선희	박창희 황선희	손재경 이민자	윤숙희 김계순 서영세	윤숙희 김계순 서영세	박정수 이영옥 정정숙	박정수 이영옥 정정숙	김요기도	하태현 안선희	
15	윤병준 최학인 이명순	윤병준 최학인 유성임 김진희	윤병준 최학인 최도훈 이계홍	윤병준 최학인 최도훈 이계홍	윤병준 최학인 최도훈 최현인		정동호 김정임 이신애	김연화 박상희 김진희 장향자	배정희 김연화 이진희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김연화 박상희 장향자 김진희	이상호	김종윤	김종윤	박연자	박영숙	박영숙	이동선	이동선	유외자 박상용 김미자 박익서	손병석 김연정	손병석 김연정	손병석 김연정	
16	주일 예배																						

고등부와 입시생을 위하여

정성철 (3학년 6반 교사)

우리 반 학생들 중 3명은 특별전형 시험을 계속해서 응시해 오는 "시험 중"인 학생들이다. 일반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여름 방학이 끝난 후 수능 D-50일대인 달력들을 보며 가슴을 졸이고 있다. 몇 주 동안 볼 수 없어서 전화를 걸었던 아이에게는 휴대폰으로 문자가 온다. "선생님 독서실이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요. 혹시 12시 30분에 안 주무시면 전화해도 될까요?"

고3 입시를 치르는 반 학생들의 모습은 정확히 10년 전 고3으로 혈떡이던 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 때 나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부모님들의 따스한 격려와 쉬지 않는 기도이었음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서울 교회 고등부 학생들은 참 복이 많다. 수능을 약 한 달 남겨놓

은 지난주일 교회 어른들께서 기도를 해 주시기 위해 고등부에 방문해 주셨기 때문이다. 한 학생 당 총 다섯 분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기도 후원자로 나서 주셨다.

비록 자신의 후원 학생이 없더라도 그 학생의 기도 카드를 챙기신 후 다른 학생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그 분들의 모습은 내 가슴에 뭉클함을 불러 일으켰다.

기도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고3 학생들의 환한 얼굴 속에서 그들에게 찾아온 하늘의 위로를 짐작해 본다. 부디 그들이 입시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의 경외하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는 영적 전쟁의 교훈을 몸소 체험하기를 기도한다.

한편 우리 고등부는 오늘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한 번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10월 16일(주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교회 601호 고등부실에서 2005년 고등부 총동원주일 행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고등부에 자녀를 보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즐거워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동정

- 개업 : 왕원희 성도(11교구) FI Tour 여행사
서초동 1357-33 남성B/D 402호 T.3472-6210
- 주간식당 봉사: 빌립선교회(10월9일)
안드레선교회(10월16일)
- 금주의 식사: 양정실 집사 강진환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이중용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명자대회(10월9일부터 50일간)기간동안 태신자 연도록
2. 교회학교 학생 1만명 이상, 100명 이상 선교사, 사랑의 집 건설케 하소서
3. 11월27일 헌당식, 압송필사성경봉헌, 선교사 파송 은혜롭게 되도록
4.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20분 3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 예배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 교회오시는길

